

# 광주·전남 행정통합 잔걸음…교육청·교육감 선거 어떻게?

특별법안서 제외…입법 오해 방지 위해 정부 유권해석 선행돼야  
행안부·교육부 협의 통해 교육통합…통합 교육감 선거 치를 듯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밝이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에 통합 자치단체장과 달리 교육감 선거 및 교육청 통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도 두렵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불비가 아닌, 현정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광역 단위 통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선행하고 불필요한 입법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난 달 24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해 정부 직할의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대표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이에 맞춰 통합 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행정 로드맵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통합의 한 측면인 교육 차지, 즉 교육감 선출과 교육청 통합에 대한 조항은 법안 제안 이후 주요 내용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행정 구역이 통합되면 교육 행정 구역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대신 정부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정준호 의원은 교육감 관련 조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행정 통합과 교육 통합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지사와 의회라는 경제와 군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일반 행정과 달리, 교육 차지는 교육감에게 독자적인 집행 권한이 집중된 구조인 만큼 법안 발의 단계에서 통합 방식을 못 박을 경우 자칫 교육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행정 체계가 단일화되며 그에 속한 교육 체계 또한 단일한 교육청을 두는 것이 법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법

안에 교육감 통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통해 통합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법안에 명시해 같은 불씨를 만들기보다 행정 통합이 결정되면 교육 통합이 뒤따르는 '자연 통합' 구조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특히 이번 광주·전남 통합은 과거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었던 '마창진(마산·창원·진해)' 사례와 달리 현정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라는 점에서 입법조사처 등 관계 기관들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선례가 없는 만큼, 법안 발의자가 임의로 교육 통합 방식을 규정하기보다는 국회 심의 과정과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입법조사처 자문 과정에서도 광역 단위 통합은 전례가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교육부와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필요시 위원회 대안이나 수정안을 통해 교육감 선거 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 논의는 행정 통합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교육 차지 통합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거와 함께 통합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선거 방식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금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6일 강기정 광주시 장에게 교육통합 논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해 7일 오후 3시에 만남을 갖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 선출을 제안한 상태여서, 이번 시장과 교육감의 만남을 기점으로 교육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I페퍼스가 최근 9연패를 기록하는 등 기복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만석 대비 평균 관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관중석 분위기는 뜨겁다. 페퍼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관중들. 〈KOVO 제공〉

## 광주 페퍼스타디움 성적 부진에도 응원열기 후끈

만석 대비 평균 관중 비율 64.1%…7개 구단 중 1위

광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배구 AI페퍼스가 비록 하위권을 맴도는 성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지만, 흥 경기장인 페퍼스타디움을 찾는 팬들의 발길은 오히려 늘어나며 뜨거운 배구 열기를 입증하고 있다.

오는 3월초까지 계속될 '진에어 2025-2026 V-리그'는 지난해 12월 30일 3라운드 일정을 끝으로 반환점을 돌았다.

6일 한국배구연맹에 따르면 전반기 누적 관중은 남자부 13만6233명, 여자부 15만46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시즌 같은 기간 대비 남자부 10.65%, 여자부 5.3% 증가한 수치로 배구 코트의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흥행 돌풍의 한 측면은 AI페퍼스가 담당하고 있다. 올 시즌 안방에서 치른 10경기에 총 2만4447명이 입장해 경기당 평균 2445명을 기록했다. 이는 여자부 상반기 리그 전체 평균인 2455명

에 육박하는 수치다.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팀 성적과 무관하게 관중석이 꾸준히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1라운드 평균 2019년이던 관중은 2라운드 들어 2760명으로 30% 이상 급증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 정관전부터 12월 26일

한국도로공사전까지 9연패라는 깊은 늪에 빠졌음에도, 3라운드 평균 2000명대 중후반(2598명)을 유지하며 식지 않는 팬심을 과시했다. 승패를 떠나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숙한 관전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빅매치'가 열리는 날이면 광주 연제체육관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난해 11월 30일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는 올 시즌 최다인 4006명이 꽉 들어차며 첫 매진을 기록했다. 12월 17일 기업은행 역시 3345명이

찾아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 최저 관중을 기록했던 10월 30일 현대건설전(1952명)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현재 리그 순위는 6위에 머물러 있지만 흥행은 순항중이다. 페퍼스의 평균 관중 수는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 GS칼텍스에 이어 4위다. 현대건설과 정관장, 기업은행보다 많은 관중을 동원하고 있다.

관중석 점유율 부문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페퍼스타디움의 만석 대비 평균 관중 비율은 64.1%로, GS칼텍스(61.4%)와 도로공사(58%) 등을 제치고 7개 구단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구단에 비해 원정 팬 유입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 속에서도 흡 편들의 충성도가 뛰어난 결과라 더욱 값지다.

겨울 스포츠의 불모지로 불렸던 광주 페퍼스와 팬들의 끈끈한 유대 속에 '배구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 전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2025년생 대상 매월 20만원

전남도는 전남에서 태어난 2025년생 아이를 대상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출생 후 12개월 경과한 유아에게 매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한 달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하며, 출생기본소득 신청 시에는 보호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 신청은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와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앞서 출생기본소득을 받고 있었던 2024년생 유아의 지급 요건을 유지

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금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100명 중 7014명에게 출생기본소득을 지원, 지급률 98.7%를 기록했다. 출생기본소득 등 다양한 양육 정책으로 전남도는 2024년 합계출산율 1.03명을 시작으로 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 1.11명을 기록, 전국 1위를 이어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합계출산율 전국 1위 흐름에 출생기본소득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결혼·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규명

### 검경 합수본 수사본부장 김태훈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권 '정교유착' 의혹을 규명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총 47명 규모의 합수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수본부는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에 설치되며, 검찰 25명과 경찰 22명이 투입돼 종교 단체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이제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검경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연합뉴스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자본감소공고

주식회사 신화기술은 2026년 1월 5일 주주총회를 단행한 바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 875,000,000원을 금 375,000,000원 감소하여 금 50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발생한 주식 5,000주를 회사가 주주에게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의 5,0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유상소각하여 발생주식의 총수 37,500주를 감소하여 50,000주로 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는 이의가 있는 재권자는 이 공고의 개재 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함.

2026년 1월 7일

주식회사 신화기술  
전라남도 나주시 원사천길 18, 1층(송월동)  
사내이사 이수경

###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문

본 회사는 2026년 01월 06일 주주총회의로 자본의 총액 875,000,000원 중 금 5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375,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 발생한 주식 5,000주를 회사가 주주에게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의 5,0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유상소각하여 발생주식의 총수 37,500주를 감소하여 50,000주로 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는 이의가 있는 재권자는 이 공고의 개재 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함.

2026년 01월 07일

주식회사 세리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해남대로 9번길 33,  
이동 1동 1층(인천동)  
대표이사 박문용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관련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묘개장은 무연보로 간주하여 일의로 관리함을 공고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위치: 전남도 광양읍 운교리 운교리 174

2. 분묘면적: 무연보 171

3. 개장일자: 2026년 01월 07일

4. 개장장소: 전남도 광양읍 운교리 운교리 174

5. 공고 대상: 전남도 광양읍 운교리 운교리 174

6. 공고 일자: 2026년 01월 07일

7. 공고장소: 전남도 광양읍 운교리 운교리 174

8. 신고처: 광양읍 운교리 운교리 174

9. 신고기한: 2026년 01월 07일

10. 신고처: 전남도 광양읍 운교리 운교리 174

11. 신고기한: 2026년 01월 07일

12. 신고처: 전남도 광양읍 운교리 운교리 174

13. 신고기한: 2026년 01월 07일

14. 신고처: 전남도 광양읍 운교리 운교리 174